

# 상장사 2분기 실적도 걱정되네

### 통신·에너지 부진에 석달새 영업이익 추정치 7%↓... 지주·상사는 선전 예상

1분기 상장사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쳐 국내 증시의 박폭을 잡고 있는 가운데 2분기 실적 전망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장사들의 2분기 영업이익·순이익 추정치가 석달새 7%가량 떨어졌다.

특히 수출·내수주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 업종의 2분기 실적 추정치가 후퇴하는 모습이다.

11일 매일경제신문이 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의뢰해 증권사 3곳 이상이 실적 컨센서스를 제시한 146개 주요 상장사의 2분기 실적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4월 말 기준 영업이익의 전망치 합계는 1월 말보다 2조1302억원(6.55%) 줄어든 30조3904억원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의 전망치 역시 1월 말 25조4287억원에서 4월 말 23조7140억원으로 1조7147억원(6.74%) 떨어졌다. 매출액 추정치도 427조775억원에서 422조663억원으로 1.0%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146개 분석기업 가운데 108개사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상장사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줄어든 셈이다.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 하락은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통신서비스업종의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석달새 48.27%나 감소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유틸리티(-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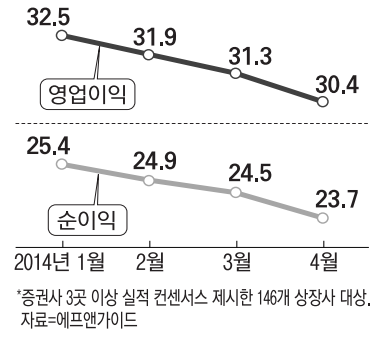
5.98%) 에너지(-15.32%) 소재(-13.77%) 등도 10% 이상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떨어졌다. 상대적으로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 IT(-1.06%) 금융(-2.71%) 경기소비재(-3.60%) 필수소비재(-3.65%) 등도 영업이익의 전망치 하향을 피하지 못했다.

석 달 동안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이 가장 나빠진 기업은 GS건설로 추정치가 무려 68.87% 줄었다. 동국제강(-58.5%) 한진중공업(-58%) 심텍(-55%) 현대하이스코(-49%) LG생명과학(-44%) 한국전력(-41%) 등도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많이 내려갔다.

삼성전자(-2.35%) 현대차(-2.83%) 기아차(-3.69%) 네이버(-1.85%) 등 시가총액 상위기업 영업이익의 추정치도 줄줄이 내려갔다.

반면 지주회사와 종합상사 등 최근 실적이 좋게 나왔던 업종은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도 올라갔다. 전망이 가장 좋아진 기업은 (주)두산으로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54.8% 뛰었다. LG상사(54%) LG이노텍(50.2%) 등도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상승했다. 한 증권사 투자전략팀장은 “통신서비스는 영업전지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2분기까지 영향이 온 듯 하다”며 “에너지·유틸리티 업종은 중국 등 경기에 대한 불안감, IT·자동차는 원화 강

줄어드는 2분기 실적 전망 (단위=조원)



세 영향으로 실적 컨센서스가 내려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내수시장 불황 여파도 유통·숙박 등 기업 실적 전망치에 덜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이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2분기 실적 전망이 지난해 동기보다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너무 성급한 투자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조언도 나온다. 실제로 이들 146개 상장사의 작년 2분기 영업이익의 합계는 28조5923억원으로 올 2분기 추정치보다 조금 낮다.

김학균 KDB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기업 실적에 대해 투자자들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지만 2분기 실적전망이 지난해보다 괜찮고, 수출도 회복되는 상황에서 1~2월처럼 실적이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동우 기자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 상승 기업 (단위=억원·%)

업체(상승률)	2014년 1월	2014년 4월
두산(54.79)	2010	3111
LG상사(53.95)	256	394
LG이노텍(50.27)	440	662
켈투스(50.14)	36	54
대한항공(42.98)	120	171
삼성생명(29.17)	980	1266
모두투어(26.87)	38	48
루멘스(18.99)	107	127
계림빌(16.71)	39	45
LG전차(15.37)	4411	5088

2분기 영업이익의 전망치 하락 기업 (단위=억원·%)

업체(하락률)	2014년 1월	2014년 4월
GS건설(68.87)	316	99
동국제강(58.47)	249	103
한진중공업(57.95)	171	72
심텍(54.65)	58	26
현대하이스코(48.79)	932	477
LG생명과학(43.78)	60	34
한국전력(40.99)	3252	1919
S-Oil(39.05)	2121	1293
위메이드(34.92)	97	63
SK이노베이션(32.96)	4697	3149

\* 컨센서스는 추정기간 3곳 이상, IFRS연결 기준, 상승률·하락률은 1월 전망치 대비 4월 전망치, 자료=에프앤가이드

# “한국기업 해외M&A 적극 나서야”

### 이언 대처 딜로이트 아태 재무자문 대표

## GAI 2014

“일본은 에너지·자동차·중공업 쪽으로 아시아 지역 인수·합병(M&A)을 크게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한국기업들은 역량이 충분해 대도 정확한 인수 대상을 찾지 못해 일본기업에 많은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

이언 대처 딜로이트 아시아 태평양지역 재무자문(FAS) 부문 총괄 대표는 매일경제신문이 13일 신라호텔에서 여는 글로벌 대체투자 콘퍼런스(GAI 2014)에 앞서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M&A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처 대표는 “딜로이트는 한국을 아시아태평양지역 핵심국가로 보고 있다”며 “이런이 다섯 번째 한국 방문인데 방문할 때마다 매번 달라져 새롭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아태지역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좋아져 올해부터 아태 국가끼리 M&A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M&A 시장에 대해선 “글로벌 사모펀드(PEF)들이 한국에 관심이 높다”면서도 “동남아보다 높은 임금수준, 강성노조, 북한의 지정학적 위험이 투자에 걸림돌인 만큼 이를 극복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치냉장고 업체로 유명한 위니아만도가 최근 KG그룹에 매각될 뻔 했다가 노조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기도 했다.

한국 M&A 시장을 PEF가 주도하는 현상에 대해 “M&A 업계가 살아 있다는 방증”이라며 “PEF 활약으로 전라북도 자사(SI)가 자극받아 M&A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진단



했다. 그는 또 토종 PEF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 성공 실적이 쌓이면 해결될 문제”라고 내다봤다.

호주 출신인 대처 대표는 한국과 호주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호주 기업들도 M&A를 통한 아태지역 진출을 노리고 있다”며 “ANZ 같은 대형 금융사가 조만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은 자동차나 정보기술(IT), 호주는 농업 등에 강점을 지니 서로 발달된 산업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래가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홍태·신수현 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 SK C&C, 중고차·중고폰이 효자

### 1분기 영업이익 42.7% 늘어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SK C&C가 중고차와 중고폰이라는 ‘신성장엔진’ 가동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7일 장마감후 SK C&C는 매출액 5238억원과 영업이익 555억원이라는 지난 1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2%, 42.7% 증가한 호실적이다. 특히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진다. 시장에서는 SK C&C의 영업이익률을 8.5%로 예상했지만 컨센서스보다 무려 2.1%포인트 높은 10.6%를 기록한 것. 이에 따라 SK C&C 주가는 지난달 30일 14만1500원에서 지난 9일 15만3500원으로 8.5% 올랐다.

IT서비스 전체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SK C&C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것은 신사업인 중고차 사업이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매출액의 56%를 차지하는 IT서비스는 지난 1분기 2936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보다 5%가량 역성장했지만, 중고차 유통 등 기타 사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무려 24.2% 증가한 2113억원을 기록했다. 수익성이 낮은 공공부문 IT서비스 매출이 감소한 것도 SK C&C 전체 수익성 개선에는 도움이 됐다.

SK C&C는 지난 3월 중고차 매매사업인 SK엔카 온라인 사업 부를 물적분할한 뒤 지분 49.9%를 호주 카세일즈닷컴에 매각해 ‘SK엔카세일즈닷컴’이라는 합자 회사를 설립했다. 지난 4월에는 ‘상하이 운봉엔카 중고차 경영서비스 유한회사’를 만들어 중국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에 따라 해

외매출 비중은 10.2%까지 상승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부문에 성장성을 갖춘 해외 부문까지 갖추면서 향후 탄탄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게다가 중고폰 유통사업인 예코폰 서비스에서도 2분기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SK엔카, 예코폰의 호조로 올해 유통 등 기타 사업은 전년보다 34% 성장한 9092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예코폰 서비스로 연간 1000만대 이상의 중고폰 유통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며 “SK엔카와 예코폰 사업을 성장엔진으로 장착하면서 2분기 이후에도 SK C&C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진 기자

# 팝콘에 발목잡힌 CJ CGV

### 옥수수값 올라 영업의 감소

영화 상영업체인 CJ CGV가 옥수수 가격 상승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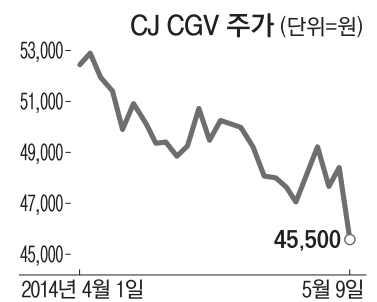
지난 8일 CJ CGV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175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시장 예상치를 19% 밑도는 수치다. ‘변호인’ ‘겨울왕국’ 등 1000만 관객 영화의 수혜를 입어 매출은 12.1% 증가한 2102억원을 기록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감소했다.

주범으로는 영동하게도 옥수수 가격 인상이 꼽힌다. CJ CGV 관계자는 “옥수수 원가 상승 등으로 매출 원가율이 전년 동기 46%에서 올해 49.5%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CJ CGV 영업이익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팝콘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 가격이 전년보다 20% 오르면서 CJ CGV 수익성도 타격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애널리스트들은 팝콘·콜라·피자 등 영화관 매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이 CJ CGV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영화상영 수익분배 비율을 뜻하는 ‘부급률’ 조정과 최근 중국 내에서 극장 14개를 신규 오픈한 것 또한 CJ CGV의 수익성을 떨어뜨린 원인으로 꼽힌다. 최찬석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실적 추이를 볼 때 외형만 성장할 뿐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CJ CGV의 고민”이라며 “향후



수익성 개선 여부는 중국법인 실적 턴어라운드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CJ CGV의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지상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중국 내 극장들이 30%대의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어 연내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도 “탄력요금제 도입으로 인한 가격 상승 효과가 2분기 이후 주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

윤원진 기자

한국인의 true friend  
10년투자 100배투자

장기투자자 대표운용사 한국투자 | 벌투자자운용 | 시장하저 10년투자

## 원칙을 지키는 투자로 아이들의 꿈과 함께 합니다

| 아이들의 10년 후를 생각하는 바른투자! |  
| 한국밸류 10년투자 어린이 펀드 |

**한국밸류 10년투자 어린이 펀드의 특징**

■ 민법상 미성년자인 가입 가능한 어린이 전용 펀드 ■ 진정한 장기투자 방식으로 운용 ■ 당사 대표 펀드 대비 1/3 수준의 운용 수수료 정책

한국밸류 10년투자 어린이 증권투자신탁1호(주식)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가입자격 최초 가입 당시 민법상 미성년자 상환 유형 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총유형 주요운용대상 주식: 60% 이상, 채권: 40% 이하, 헤지펀드: 2명업의 기준가 적용  
 \*15시 경과 후: 3명업의 기준가 적용, 환매기준일 - 15시 이전: 제2명업의 기준가로, 제4명업의 지급 - 15시 경과 후: 제3명업의 기준가로, 제4명업의 지급 선취환매수수료 A-납입금액의 1%, C-E-입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1년 미만: 이익금의 30%, 1년 이상 10년 미만: 이익금의 1%, 총보수 A-연 1.048%, 운용 0.25%, 판매 0.75%, 기타 0.048%, C-연 1.248%, 운용 0.25%, 판매 0.95%, 기타 0.048%, C-E-연 1.048%; 운용 0.25%, 판매 0.75%, 기타 0.048% 운용사 한국투자증권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집합투자계약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의거 신탁업자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한국투자증권자산운용은 원금수수료 부과기간이 3년인 펀드를 예외적으로 출시한 자산운용사로 장기투자자를 지원합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벌투자자운용